

모의 양육태도가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이 귀 숙[†] 정 현 희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모의 양육태도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조모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모의 양육태도를 예언변수로, 아동의 또래관계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총 401명(남아 200명, 여아 201명, 평균연령 6.8세)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의양육행동검사, 한국판-아동행동평가척도, 아동용 유능감 척도 및 긍정·부정 또래 지명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12.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사용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양육태도는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하여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유능감을 통하여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예방적 개입에서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보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개입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학령초기, 모의 양육태도, 문제행동, 유능감, 또래관계, 내적작동모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귀숙,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부산시 서구 부용동 1가 65-1번지 동아빌딩 2층 (사)한국독서문화재단 상담실, Tel : (051) 243-4842, E-mail : lgs4305@hanmail.net

학령기 아동들에게 있어서 원만한 또래관계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학령초기 동안의 또래관계는 이후의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적응을 예측해 줄 수 있는 핵심적 변인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와 이후의 사회성과 성격발달을 연결하는 주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김윤경, 이옥경, 2001; Ladd, 1999; Ladd & Kochenderfer, 1996). 학령초기에 친구관계에서 부적응과 외로움을 경험한 아동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또래에서 거부나 고립경험을 가진다는 Ladd & Troop-Gordon(2003)의 연구나 학령초기에 또래로부터 거부경험을 가진 아동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울이나 위축감 등의 부적절한 정서를 경험한다는 Cillessen, Van Lieshout와 Haselager (1997)의 연구들은 학령초기기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에 또래관계가 특히 주요한 발달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이전의 유아기에 비하여 또래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Grusec과 Lytton(1988)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또래는 사회적 모델이자 사회적 행동의 강화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이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며,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더욱이 초등 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족중심의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로 가족 이외에 교사와 같은 성인들이나 또래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세계를 넓혀 나간다는 점에서(Feiring & Lewis, 1987) 학령초기의 또래관계는 원만한 학교생활과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한편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이는 아동은 가족이라는 최초의 사회 속에서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점차로 사회적 환경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가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어머니는 유아기 및 아동기 동안 아동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아버지에 비하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더욱 관련성이 깊다(Pett & Vaughan-Cole, 1994; Pettit, Bates, & Dodge,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를 고찰함에 있어서 모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의 관한 최근의 연구들(장재숙, 백경임, 2002; Macdonald & Parke, 1984)은 양육태도라는 가족적 맥락에서 습득되는 행동특성이나 인지적 표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또래관계에서의 적응 형태로 전이되는지를 밝히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의 최근 연구들은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유능감 등의 인지표상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가령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또래관계로 전이되는 과정에서의 귀인(attribution)이나 문제해결 기술(problem solving skills), 자아개념(self-concept) 등은 과정적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입증된 바 있다(Parke, Cassidy, Burks, & Bhavnagri, 1989).

이러한 관점들은 Harter와 Nowakowski(1987)가 제안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과도 그 맥락이 일치한다. 내적작동모델은 arter 등(1987)이 Bowlby(1973)의 애착이론을 발전시킨

모델이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들(significant others)과의 애착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한 내적 표상이 자아발달 과정과 이후의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Harter 등(1987)은 자아에 대한 지각을 내적작동모델에서의 전형적인 과정적 변수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다. Harter(1985)는 특정영역 즉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유능감이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대한 자기지각은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평가를 통하여 획득해 나가게 되며 일차적으로는 부모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의 개인의 행동과 태도 및 경험에 기능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성격과 대처행동, 및 적응 등 거의 모든 심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Harter, 1990).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인 Chen, Chang, He와 Liu(2005)는 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및 학업적 유능감을 증진시켜 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황해익과 송연숙(1997)을 보면 학령기의 시작과 더불어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동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을 때 아동 자신도 스스로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경숙(1992)은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아동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아동을 대하는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아동의 능력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재숙과 백경임(2002)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는데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구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연구를 통하여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자아개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완전매개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아동의 자아지각을 과정적 변수로 하는 내적작동모델에 관한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개념이나 유능감과 같은 아동의 자기 지각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대인관계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와 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적 변인은 양육태도로부터 비롯되는 문제행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Webster-Stratton과 Herbert(1994)는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주요한 원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행동은 학령중기와 후기를 거치면서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비정상적인 또래집단의 가입을 촉진시키게 되고 비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점차로 부적응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Pettit 등(1997)은 학령전기부터 학령기까지 지속된 7년간의 종단연구에서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태도가 학령초기는 물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고 또래관계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Achenbach(1991)가 아동의 문제행동의 영역을 우울/불안이나 위축, 신체화 증상과 같이 정서적 어려움을 수반하여 행동화되는 영역을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로, 비행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되는 문제행동의 영역을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로 구분한 이후 이와 같은 분류와 관련하여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가령, Aunola와 Nurmi(2005)는 학령초기를 포함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3년간의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면서도 죄책감이나 후회감을 심어주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 때 아동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빈번히 일으키며, 덜 애정적이면서 행동의 통제를 많이 할 때 외현화 문제가 적게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Eisenberg, Zhou, Spinrad, Valient, Fabes와 Liew(2005)도 학령기초기인 9세 아동을 대상으로 2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 수행한 종단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정서적 조절력을 키워주게 되어 점차로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Eisenberg 등(2005)의 연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외현화 문제의 감소가 학령초기에는 양육태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학령후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이러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학령기 동안 또래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인다(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Hodge, Boivin, Vitaro, & Bukowski, 1999; Schwatz, Dodge, & Coie, 1993). 이에 관한 실례로 Hodge 등(1999)의 연구를 보면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학교에서 자주 울거나 또래에게 복종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폭력적인 행동에 보상과 강화를 제공하고,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인상을 주고, 자주 다툼을 유발하는

등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점숙과 유안진(1999)의 연구를 보면 이와 유사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모두가 또래집단의 폭력을 예언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러한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들은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거부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신감과 학교생활의 전반적 영역에서도 부적응을 경험한다. 국내의 연구 가운데 고윤주 등(2000)은 이러한 행동문제와 또래수용 및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을 밝히는 구조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또래집단의 수용과 거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내었다. 위의 연구들을 볼 때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되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정적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작동모델의 관점에 근거한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위의 연구들에서 아동의 유능감이나 문제행동과 같은 과정적 변수들은 원인자 역할을 하는 준거변인과 결과변수 사이에서 매개적 기능(mediator function)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또래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동향은 변인들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포함하여 아동의 성격 및 행동적 특성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족적 맥락이 어떠한 매개변수와 과정을 통하여 또래관계로 전이되는지에 관한 내적작동모델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이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기지각이나 문제행동 등 하나의 매개변수만을 사용하여 단선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치중되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지표상과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사실상 여러 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은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과 같은 현상이 학령전기 혹은 학령초기부터 시작되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속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Ladd et al, 2002) 초등학교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까지를 대상으로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Gillessen et al., 1997). 따라서 아동의 적응적인 또래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더욱 이전시기부터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초기인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언변수인 모의 양육태도가 결과변수인 또래관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볼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개념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총 18학급)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학부모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513부였으나 이 가운데 아동과 부모의 설문지 쌍이 맞지 않는 설문지와 응답이 누락되거나 성실하지 않는 설문지 등을 제외한 총 401명(남아 200명, 여아 201명, 평균연령=만 6.8세/SD=.55)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모의 양육행동 검사

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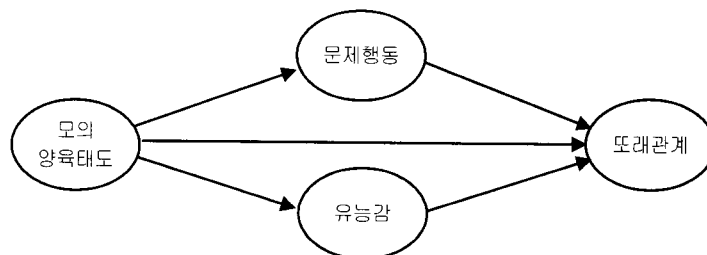


그림 1.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념모형

Instrument(MBR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이원영(1983)의 양육행동검사 가운데 애정적-증오적양육태도,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긍정적-부정적 평가태도의 3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척도는 문항번호 안에서 다시 4~6개의 하위 질문을 포함하는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방식(아주 그렇다:1, 그저 그렇다: 3, 아주 아니다:5)으로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역산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애정적, 수용적, 긍정 평가적) 양육태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전체문항이 .88이었으며, 하위척도들은 각각 .88, .77, .74이었다.

한국판 아동 행동평가척도

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Achenbach(1991)의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K-CBCL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Problem Behavior Scale)와 사회능력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위축(withdrawn), 신체증상(somatic complaints), 불안/우울(anxious/depressed)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delinquent), 공격성(aggressive) 등의 외현화 문제 및 총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K-CBCL은 아동의 부모 혹은 주요양육자가 아동에 대하여 3점 리커트 방식(전혀 그렇지 않다:0점, 자주 그렇다:2점)으로 문항에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1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내재화 문제가 .79, 외현화 문제가 .60이었다.

아동용 유능감 척도

아동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2)의 아동용 유능감 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기초로 하고, Brookover(1967)의 학업능력자아개념 척도와 Wheeler와 Ladd(1982)의 척도(Children's Self-Efficacy for Interaction Scale)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하게 제작된 이주리(1994)의 아동용 자기 역량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역량지각(6장), 사회적 역량지각(6장), 그리고 신체적 역량지각(6장)을 측정하는 총 18장의 그림카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전체문항이 .88 인지적 유능감이 .75, 사회적 유능감이 .72, 신체적 유능감이 .69이었다.

긍정·부정 또래지명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ie와 Dodge(1983)의 긍정·부정 또래지명 검사(positive and negative nomination)를 사용하였다. 긍정·부정 또래지명 검사는 아동과 1:1 면담을 통하여 측정 되었으며, 아동이 속해있는 학급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 3명(생일파티에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과 가장 싫어하는 친구 3명(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지명수와 부정적인 지명수를 계산하여 각 학급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L(liking) 점수와 D(dislike)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환산된 L점수를 또래수용 점수로, D점수는 또래거부 점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학령기 아동은 이성의 또래를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Asher & Hymel, 1981) 본 연구에서는 동성의 친구만을 지명하도록 하였다.

절차 및 자료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부산 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의 1학년(총 18학급)을 대상으로 2005년 7월~9월에 학급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으며, 아동들은 1:1의 면접을 통하여 '아동용 유능감 척도'를 완성하였다. 아동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 외에 상담교육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1명과 석사 2명의 보조연구자가 본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측정방법에 관하여 훈련 받은 후 함께 실시하였다.

그 후에 수집된 자료를 선별하여 SPSS WIN

12.0 및 AMOS 4.0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우선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다음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AMOS에서 제시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모형의 수정을 실시하여 최종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401)

변 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애정적-중요적 양육태도	1.00									
②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20 ^{***}	1.00								
③ 긍정적-부정적 평가태도	.48 ^{***}	.43 ^{***}	1.00							
④ 내재화 문제	-.12 [*]	-.23 ^{***}	-.20 ^{***}	1.00						
⑤ 외현화 문제	-.09	-.28 ^{***}	-.22 ^{***}	.80 ^{***}	1.00					
⑥ 인지적 유능감	.13 ^{**}	-.13 [°]	-.13 [°]	-.03	-.04	1.00				
⑦ 사회적 유능감	.17 ^{***}	-.10 [°]	.07	.04	-.06	.51 ^{***}	1.00			
⑧ 신체적 유능감	.12 [°]	.08	.02	.01	-.06	.50 ^{***}	.50 ^{***}	1.00		
⑨ 또래수용	.05	.05	-.03	-.04	-.15 ^{**}	.17 ^{**}	.27 ^{***}	.14 ^{***}	1.00	
⑩ 또래거부	-.05	-.02	-.09	.00	.13 ^{**}	-.25 ^{***}	-.23 ^{***}	-.19 ^{***}	-.470 ^{***}	1.00
M	3.78	3.19	3.30	3.67	5.42	3.78	3.19	3.30	2.78	2.55
SD	.33	.35	.32	4.85	5.71	.33	.35	.32	2.27	2.32

[°] $p < .05$. ^{**} $p < .01$. ^{***} $p < .001$.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를 예언변수로, 아동의 또래관계를 결과변수로,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을 매개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 가운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잘 반영해준다고 알려진 RMSEA, TLI, CFI 등(홍세희, 2000)을 중심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에 의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χ^2 값에 의한 모형 적합도는 p 값이 .05이상일 때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χ^2 값이 p 값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χ^2 값은 그 충족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 의 값이 적합도에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면 된다(홍세희, 200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은 .05이하이면 좋

은 적합도(close fit),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판단되는데(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058로 괜찮은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GFI(good of fit index)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은 취하고,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GFI 값이 .966으로 좋은 모형의 값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AGFI(adjusted GFI)값은 GFI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85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FI 값이 .939로 좋은 모형의 값을 충족시키고 있다. TLI(Tucker-Lewis index)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9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TLI값이 .941로 좋은 모형의 값을 충족시키고 있다. NFI(Bentler-Bonnet normed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도 .9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는 NFI가 .935, CFI는 .961로 좋은 모델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모형은 χ^2 값에서는 좋은 적합도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RMSEA, GFI, AGFI, TLI, CFI 등에서는 모두 좋은 적합도의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또래관계의 매개변수를 통하여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은 대체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경로 추정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RMSEA	GFI	AGFI	TLI	NFI	CFI	χ^2	df	p
기준값	<.05	>.9	>.85	>.90	>.90	>.90	70.869	30	.000
적합도	.058	.966	.939	.941	.935	.961			

표 3.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

경로	Estimates	S.E	t	p
모의 양육태도 → 또래관계	-.046	.366	-.662	.508
모의 양육태도 → 문제행동	-.188	.803	-2.737	.006
모의 양육태도 → 유능감	.154	.083	2.309	.021
문제행동 → 또래관계	-.207	.025	-3.792	.000
유능감 → 또래관계	.451	.368	5.25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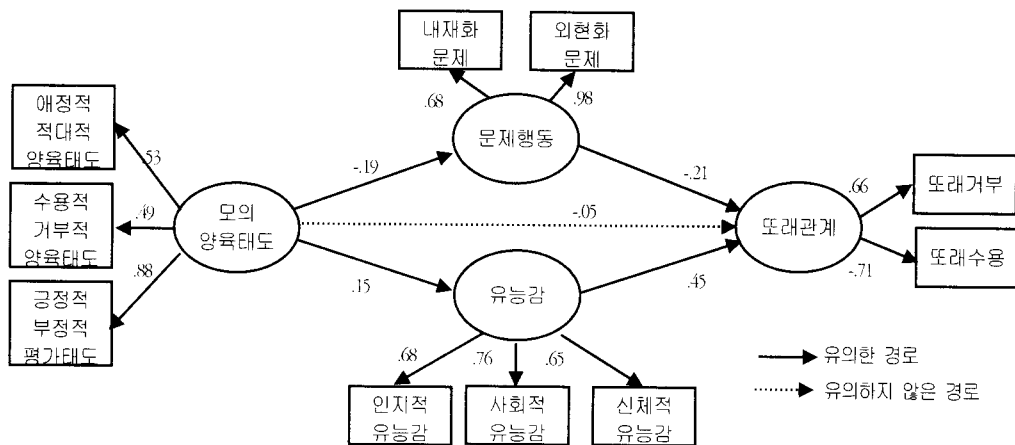


그림 2.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의 경로도형

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경로 추정치에서 결과변수인 아동의 또래관계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인은 아동의 문제행동($\beta = -.207, p = .000$)과 유능감($\beta = .451, p = .000$)이었다. 또한 예언변수인 모의 양육태도는 매개변수인 아동의 문제행동($\beta = -.188, p = .006$)과 유능감($\beta = .154, p = .021$)에 각각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로 추정치의 값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도형(path diagram)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수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Amos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수정지표(modification index)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수정을 실시하였다. 수정과정에서는 연구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χ^2 값의 유의한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의 양육태도 → 아동의 또래관계’의 경로를 제거하였다. 즉 ‘모의 양육태도 → 아동의 또래관계’의 경로를 제거하면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1만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1분포에서 χ^2 값을 유의하게 (≥ 3.84) 감소시키지 못하여 모형 적합도 및

표 4. 수정모형의 적합도

	RMSEA	GFI	AGFI	TLI	NFI	CFI	χ^2	df	p
기준값	<.05	>.9	>.85	>.90	>.90	>.90			
연구모형 적합도	.058	.966	.939	.941	.935	.961	70.869	30	.000
수정모형 적합도	.057	.966	.940	.944	.935	.964	71.269	31	.000

간명성의 향상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선 χ^2 값의 경우 p값이 .05 이상이 되지 못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RMSEA, AGFI, TLI, CFI의 적합도 지수에서 약간의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모형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χ^2 값의 유의한 증가 없이도 연구모형에 비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더욱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정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하여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다 경험적 자료에 부응되는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수정모형의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수정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예언변수인 모의 양육태도는 매개변수인 아동의 문제행동($\beta=.180, p=.009$)과 유능감($\beta=.148, p=.025$)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아동의 문제행동($\beta=-.198, p=.000$)과 유능감($\beta=.442, p=.000$)은 결과변수인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조경로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수정모형의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수로 모의 양육태도를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와 예언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Aroian의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로 설정된 아동의 문제행

표 5. 수정모형의 구조경로 추정치

경로	Estimates	S.E	t	p
모의 양육태도 → 문제행동	-.180	.781	-2.619	.009
모의 양육태도 → 유능감	.148	.082	2.242	.025
문제행동 → 또래관계	-.198	.024	-3.790	.000
유능감 → 또래관계	.442	.359	5.207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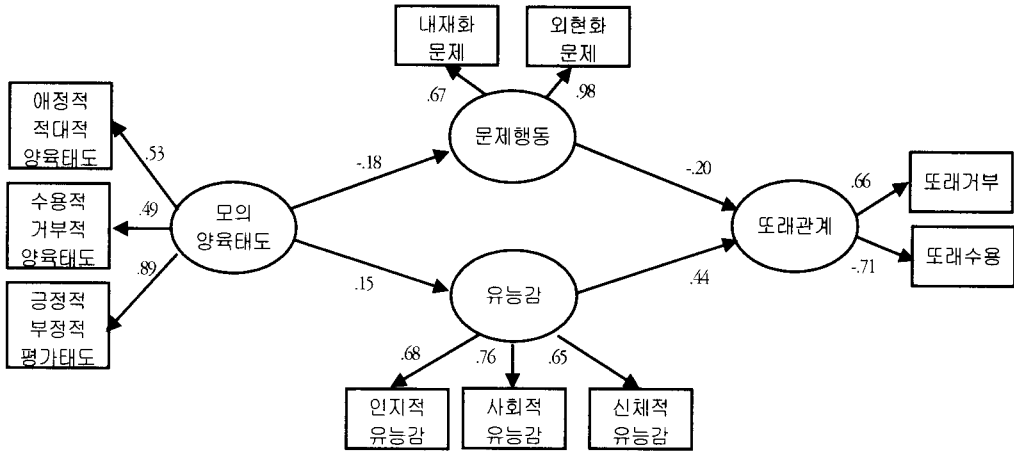


그림 3.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정모형의 경로도형

동은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t=2.952 \geq 1.96$). 즉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수로 설정된 유능감도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은 나타났다($t=2.206 \geq 1.96$). 즉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은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양육태도는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이고 아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행동 자체는 아동이 또래에서 수용 혹은 거부당하는 경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매개로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이고 아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수록 아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적게 나타내어 또래수용을 많이 경험하고, 또래거부를 적게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유능감을 매개로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이고 아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수록 아동은 자신을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유능하다고 지각하며 이러한 유능감이 또래수용 경험을 많이 하고, 또래거부 경험을 적게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초기인 초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어

떻게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모형을 검증해 보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를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 401명과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및 유능감과 또래관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 및 Amos 4.0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기술통계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비롯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한 다음 수정지수에 근거하여 모형을 수정한 후 최종적인 수정모형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효성 및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양육태도는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 긍정 평가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아동이 또래에서 수용경험을 많이 하고 거부경험을 적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또래관계나 사회적 능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원유미, 2000; Cohn, 1990; Perry, Hodges, & Egan, 2001; Putallaz, 1987)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가령 Cohn(1990)이나 Putallaz(1987) 등은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적절히 통제하고 합리적일 때 아동은 높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거부적이고 강압적이며,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에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내적작동모델에 비추어 보면 Harter(1990)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아동에게 직접

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보다 오히려 아동이 환경적 맥락 가운데 놓인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경우 모의 양육태도라는 잠재변수에 포함된 측정변수가 애정적-적대적 양육태도, 수용적-거부적 양육태도, 긍정-부정 평가적 태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령 최근의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나 가해아동에 관한 연구는 양육태도의 하위 영역 가운데 부모의 심리적, 물리적 통제를 주요한 변수로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주요한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실례로 Perry, Hodges와 Egan(2001)은 또래괴롭힘의 피해아동 부모들은 아동을 과보호하거나 나이보다 어리게 다루어 아기 취급을 하고 여가시간 활용 또한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언어를 통한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이며 적절한 규제를 하고 애정적일 때 아동은 높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고, 거부적이고 과잉보호를 하거나 비밀관적일 때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는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다(원유미, 2000). 따라서 보다 다양한 측정변수를 포함한 연구를 수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이고 긍정적

으로 평가해 줄수록 아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적게 가지게 되어 또래에서 수용 경험을 많이 하고 거부 경험을 적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의 주요한 흐름이었던 내적작동모델에 근거해 보면 Webster-Stratton 등(1994)와 일치한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요한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학년진학과 더불어 건전하지 못한 또래집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최근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연구 영역인 또래괴롭힘과 관련지어 고찰해 볼 만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점숙과 유안진(1999), 고윤주 등(2000)의 연구를 보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또래집단에서 고립이나 거부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Hodge 등(1999)의 연구를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이 문제행동과 또래관계 혹은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단선적인 관련성에 치중되어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문제행동의 원인자인 양육태도와 부적응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에 관하여 그 과정을 탐색해 보았는데 좀 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유능감을 통하여 학령초기 아동의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 긍정 평가적일수록 아동은 자신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여 이러한 지각이 또래관계에서의 수용경험을 높이고 거부경

험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국내의 연구인 장재숙과 백경임(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자들은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개념을 매개변수로 하는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상정하여 적합성 및 유효성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도 연구모형에서 모의 양육태도에서 아동의 또래관계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하였을 때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유능감과 같은 아동의 자아지각과 관련된 변인은 Harter 등(1987)에 의해 주장되었던 내적작동모델에서 대표적인 과정적 변수 즉 매개변수로 Chen 등(2005), 황해익과 송연숙(1997) 등과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가족적 변인과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에 관한 최근의 흐름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아울러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의 관련성을 횡단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령초기의 또래관계가 이후의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여러 연구종단 연구의 결과들(Bagwell, Newcomb, Bukowski, 1998; Ladd & Troop-Gordon, 2003;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령초기의 또래관계가 이후의 또래관계와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변인적 고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현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관계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래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한 실제적인 개입전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모교육보다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유능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나 특정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상정된 변수들 간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관계를 규명하고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대상 아동들을 성별 혹은 월령별 등의 집단을 구별하여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학령 초기는 유아기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여전히 개인차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각 잠재변수가 가지는 측정변수의 영역에서 성별로 인한 특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 혹은 월령별 등의 집단 구분에 의한 모형의 검증 및 일반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65-82.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선영 (2001).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과 학교적응.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점숙, 유안진 (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9(3), 107-121.

이주리 (1994).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지각.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유미 (2000).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 유형과 자녀특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장재숙, 백경임 (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11.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황해익, 송연숙 (1997). 사회적 지지 및 능력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 지각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논총, 7(1), 113-140.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gwell, C. L., Newcomb, A. F.,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ce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illessen, A. T. M., Van Lieshout C. F. M., & Haselager, G. J. T. (1997). Early Peer Interaction as a Predictor of Later Social Adjustment: Result from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ERIC Document*, NO. 409-983.
- Chen, X., Chang, H., He, Y., & Liu, H. (2005). The peer group as a context: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6(2), 417-434.
- Cohn, D. A. (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 years-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 -Palmer Quarterly*, 29, 261-281.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 C., Fabes, R. A.,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 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Feiring, C., & Lewis, M. (1987). The Child's social network: The effect of age, sex and socioeconomic status from 3 to 6years. In S. Salzinger, S. Antrobus, & M. Hammer(Eds.), *Social network of childre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Hillsdale, N.J.: Erlbaum.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Histor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c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ian Jr.(Eds.), *Competence considered*(pp. 67-97). New Heaven, CT: University Press.
- Harter, S., & Nowakowski, M. (1987). *Manual for the dimension of depression profi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University of Denver.
- Hodge, E. V.,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 Ladd, G. W. (1999).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early and middle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 333-359.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wartz, D., Dodge, K. A.,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Macdonald, K., & Parker,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relationship with others as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arke, R. D., Cassidy, J., Burks, V., & Bhavnagri, N. (1989). Alternative pathways: Modes of family-peer relationships. In S. Asher & J.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338-36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rry, D. G., Hodges, E. V. E., & Egan, S. K. (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A review and a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73-10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ettit, M. A., & Vaughn-Cole, B.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perceived stress: The impact on children's adjust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51-158.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1*, 324-340.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원고접수일 : 2006. 5. 9.

게재결정일 : 2006. 5. 27.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Attitude on Peer Relationship in Early School Age: Mediated by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erceived Competence

Guisuk Lee

Hyunhee Chung

Department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maternal parenting attitude,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erceived competence contribute to relationship with peer in early school aged children. A total 401 first grade children(200 boys and 201 girls) in 3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were surveyed. Measurements included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K-CBCL,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and Positive and Negative Nomin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12.0 and AMOS 4.0 was performed for data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relationship with peer in early school aged children doesn't linked with maternal parenting attitude directly, but linked indirectly via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erceived compet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interventions for good peer relationship in early school age need to contain the contents of reducing problem behavior and improve perceived competence.

Key words : early school ag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problem behavior, perceived competence, relationship with peer, internal working model.